

# 환경교육센터와우, 지구적 차원의 협력

✎ 손혜철 | ⓒ 승인 2023.11.10 17:32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와우(센터장 육지송)에서 10일(금) 오후, 'Curtin-KNUE 환경교육 협력 워크숍'이 개최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 위치한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와 한국교원대학교(KNUE)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Curtin-KNUE 환경교육 협력 워크숍'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초·중등 교사와 지역적 환경이슈를 활용한 디자인 씽킹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참여한 교사가 직접 지역 기반 디자인 씽킹 환경교육 수업을 운영한 후 대면 워크숍 과정을 통해 실제 수업 운영사례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수업 운영사례 공유와 더불어 국내 우수 환경교육 기관 운영사례로 와우센터 방문이 함께 진행되었다. 와우센터 전시관 해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공유하면서 한국과 호주 환경교육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Curtin University의 융합교육학과를 이끄는 Rekha Koul 교수 일행과 한국교원대학교의 김찬국, 강남화 교수일행은 와우센터를 방문하여 지역기반 환경교육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 넓은 협력을 다짐하였다.

와우센터의 환경교육 운영사례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환경교육 사례로 알려지면서 충북교육이 환경교육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지송 환경교육센터장은 “2022년 3월에 설립된 이후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우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을 경험하였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소개되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충북 환경교육의 방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손혜철** webmaster@bzeronews.com

---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